

2008. 4. 27(일)~ 5. 2(금)  
오스트레일리아

# 호주 비교시찰 결과 보고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목 차

I. 개 요 .....	3
II. 방문국 개요 .....	6
1. 일반현황 .....	6
2. 호주의 역사 .....	9
III. 기관 및 시설 방문 .....	11
1. 캔터베리 시청(의회) .....	11
2. The Salvation Army(구세군 사회복지기관) .....	17
3. 시드니 2000 올림픽스타디움 .....	25
4. 기타방문지 .....	27
VI. 방문결과 .....	32

## I . 개 요

1. 방 문 국 : 오스트레일리아(CommonWealth of Australia)

2. 기 간 : 2008. 4. 27(일) ~ 5. 2(금) 【4박 6일】

### 3.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제2조 제4호
- 해외 비교시찰계획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1098(2008.03.31)】
-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개최 : 2008. 4. 10(목) 15:00  
- 심사결과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비교시찰계획 원안대로 심의 통과

### 4. 추진배경

- 최근 지방분권의 가속화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해가는 시점에 선진지의 지방제도 및 의회운영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교환 기회를 가짐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 문화·예술·관광 등의 인프라 시설을 견학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예술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5. 방문기관 : 브리지번 『Salvation Army(저소득층 사회복지기관)』  
시드니 『캔터베리 시의회』, 『2000 올림픽스타디움』 등

6. 보고서 작성자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호주 비교시찰단)

7. 방문자 명단 : 총 12명(의원 8명, 수행직원 4명)

연번	소 속	직위(급)	성 명	비 고
1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장	손 철 운	시찰단장
2	"	부위원장	황 정 수	
3	"	의 원	최 화 자	
4	"	의 원	류 수 용	
5	"	의 원	전 현 준	
6	"	의 원	김 유 순	
7	"	의 원	정 문 희	
8	도시경제위원회	의 원	최 용 복	
9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 영 훈	의원보좌
10	"	행정7급	한 국 희	담 당
11	"	행정8급	맹 철 호	수 행
12	"	기능8급	인 효 숙	수 행

## 8. 세부추진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일 정	비 고
제1일 4/27 (일요일)	인 천	17:30 18:30 <u>20:30</u>	부평구의회 출발 인천국제공항 출국 수속 인천 출발	10시간 소요
제2일 4/28 (월요일)	시드니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07:30 10:05 11:35 12:30  18:30	시드니 도착 - 국내선이동 시드니 출발 브리즈번 도착/골드코스트로 이동 중식 해양테마공원 『씨월드』 방문 및 도시기반 시찰 - 해양 동·식물 관람 및 도시기반시설 시찰 석식 후 호텔 투숙	국내선 이동

제3일 4/29 (화요일)	골드코스트	07:30 10:00 12:30  13:30 15:30 17:00 18:00	호텔조식 후 범 세계적인 저소득층 복지기관 시찰 『Salvation Army』 - 선진화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 운영 실태 파악 중식 후 이동 초기이민시대의 『전통목축 농가』 문화체험 『생츄리코브 마을』 방문 석식 후 호텔 투숙	
제4일 4/30 (수요일)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시드니	08:45 10:15 12:30 14:00 15:00 17:00 18:00	호텔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브리즈번 출발 시드니 도착 중식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시찰 시드니 『2000올림픽스타디움』 시찰 야생동물보호구역 『와일드라이프월드』 방문 석식 후 호텔 투숙	
제5일 5/1 (목요일)	시드니	07:00 10:00  12:00 13:30 15:30  18:00	호텔 조식 『캔터베리 시청』 방문 - 선진행정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및 비교시찰 중식 호주대표 주립미술관 『NSW아트갤러리』 방문 『시드니 달링하버』, 『오페라하우스』 시찰 - 관광문화도시 기반조성 및 지원 활동 석식 후 호텔투숙	캔터베리 시의회 남기성의 원 간담회
제6일 5/2 (금요일)	시드니 인천	07:30 09:10 <u>18:30</u> 19:00 20:00	호텔 조식 후 공항이동 시드니 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부평구의회로 이동 부평구의회 도착 후 해산	

☞ 이상 시간은 모두 현지(한국, 호주)시간,  
호주는 한국보다 1시간 빠름.

## II. 방문국 개요



### ■ 일반현황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이다. 지리적으로는 남반구의 환태평양 사이에 위치한다.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및 태즈메이니아 섬 등 대륙에 딸린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면적은 유럽의 약 1.5배, 한반도의 약 35배 크기.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나라이며 가장 평평하고 건조한 대륙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강우량이 적으며 강은 몇 개 없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토양은 매우 오래되어 지층이 얇고 마모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지역이 많다.

호주 대륙은 약 3분의 1이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구는 주로 강우량이 많은 동해안과 서부 호주의 남서해안, 그리고 태즈메이니아 등지에 집중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토의 면적은 미국과 비슷하지만 인구는 2천1백만명(2007년 12월 기준)뿐이다.

대륙에는 장구한 세월 동안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특이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대류에 속하는 캥거루이다. 그밖에도 코알라, 왈라비, 호바트, 덩고, 주머니쥐, 오리너구리, 개미핥기 등이 호주대륙의 고유동물이며, 230여 종의 포유류 외에도 200여 종의 파충류 등이 서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매우 현대적이고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고 있는 독특한 나라이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해안을 낀 기다란 지역이다. 이 지역을 따라 좋은 농경지가 발달해 있고, 풍부한 광물 자원이 사막의 오래된 땅속에 묻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는 넓고 다양한 토양만큼이나 다양하다. 태즈매니아는 춥고 습한 기후이며 동해안과 남서부는 겨울에 습하고 온화하다가 여름이 되면 건조하고 덥다. 목장 지역은 겨울에는 매우 춥고 여름에는 찌는 듯이 덥다. 중앙부는 건조한 열로 메말라 있지만 북쪽은 고온다습한 열대 기후이다.

또한 호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국이다. 주요 관광지는 퀸즈랜드 해안의 Great Barrier Reef(대산호초 유명), 동해안의 해변 휴양지, 눈 덮인 산들과 Australian Alps 등이다. 또한 호주 북부의 Ayers Rock과 카카두 국립공원 등도 호주의 주요 관광명소이다.

- 공식국명 : COMMONWEALTH OF AUSTRALIA
- 수     도 : 캔버라
- 면     적 : 7,682,300km<sup>2</sup> (한반도의 약35배)
  -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6번째 면적
  - 동서 약 4,162km, 남북 약 3,537km
- 인     구 : 2,100만여명 (2007년 12월)
  - 시드니 420만, 멜버른 360만, 브리즈번 170만, 기타

- 인구밀도 : 2.4인/km<sup>2</sup>
- 언 어 : 영어
- 민 족 : 유럽인(89.2%), 아시아인(4.1%), 원주민(1.6%), 아랍인(1%)
- 지형 및 기후
  - 서부 40%와 북부의 80%가 열대성,
  - 나머지는 온대성 기후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
  - 육지의 30%가 사막
  - 계절은 우리나라와 정반대
  - 지형은 오래되고 평균 해발 300m 이하의 평탄한 대지
  - 연평균 강수량 : 465mm
- 동 식 물 : 호주 대륙은 오랫동안 다른 대륙과 분리되어 있어 여타 대륙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동·식물이 진화
- 종 교 : 기독교 74%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국가원수 : Elizabeth 2세 영국 여왕
- 의 회 : 양원제
- 화폐단위 : 호주 달러(A\$)
- 국민소득 : 약 \$35,990/1인당 (2006년)
- 행 정 : 6개주와 2개의 특별구, 국내 자치 관할구, 국외 자치 관할구
  - 6개주 :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퀸즐랜드, 서호주, 남호주, 태즈매니아
  - 2개 특별구 : 노던테리토리, 호주 수도 특별구
  - 국내자치구 : 저비스베이 특별구
  - 국외자치구 : 노포그 섬, 코랄해, 코코스 섬, 크리스마스 섬

## ■ 호주의 역사

### ○ 대륙의 발견(Discovery)

호주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대륙 중의 하나이다. 15억년 전 대륙을 이루고 있던 곤드와나(Gondwana)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16세기 포르투갈 탐험가인 루이스 베이즈 드 토레스(Luis Vaes de Torres)가 케이프 요크와(Cape York) 뉴기니아(New Guinea) 사이를 탐험했고, 이어서 네덜란드 탐험가들인 디르크 할토그(Dirk Hartog), 반 디에멘(Van Diemen) 그리고 아벨 타스만(Abel Tasman)이 탐험을 했으나, 그 당시 호주 대륙은 불모지로만 생각되어졌다.

1770년 영국 해군 선장 제임스 쿡(James Cook)은 지금의 사우스 시드니(South of Sydney)의 보타니 베이(Botany Bay)에 상륙을 했고, 같이 동행한 과학자들과 식물학자들이 발견한 호주만의 독특한 동식물들을 발견함으로서 비로소 호주는 영국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제임스 쿡 선장은 북쪽으로 항해를 하면서 동쪽 연안지역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고,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라는 이름을 붙이고 킹조지 3세(King George III)의 명 아래 영국의 영토로 귀속 시켰다.

### ○ 정착(Settlement)

미국은 혁명 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됨으로써 영국 내 많은 죄수들로 수용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땅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 땅이 호주로 정해졌다. 1788년 선장 아더 필립(Author Philip)은 11척의 배와 736명의 죄수들 그리고 간수들을 이끌고 지금의 시드니 하버(Sydney Harbor)에 왔고, 이들은 호주의 첫번째 정부가 되었다.

1852년까지 영국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16만명의 죄수들이 호주로 왔으며, 1793년에는 영국으로부터의 정식 이주민들도 드문드문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 이주민들은 영국 정부로부터 값싼 토지와 죄수들의 노동력을 지원 받았다. 탐험가들은 계속해서 호주 대륙을 개척해 나갔고, 여러 지역에서 양모 산업이

급속히 발전되어 갔다.

1850년대에 이르러 금과 구리의 발견은 유럽과 중국, 아메리카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주를 유도했고, 그 결과 금광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들은 대 도시들을 건설했다. 도시들은 꾸준한 성장을 했고, 이는 1901년 1월 1일에 하나의 영국 연방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 ○ 원주민 에버리진(Aborigine) 역사

최초의 에버리진인들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이동해온 것으로 추정되며, 적어도 5만년 동안 호주 대륙에 살아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부족 중심의 생활과, 특히 정신세계를 강조하는 부족들이었다. 특별한 그들만의 문자는 있지 않았고, 주로 그들의 표현은 벽화로 남겨 놓았으며, 지금은 관광 자원·연구 자료로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유럽으로부터 이주하기 시작한 백인들은 점차적으로 에버리진 부족과 그들의 전통을 말살시켜왔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이나마 그들의 문화를 존중 하기는 하지만, 원주민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대부분의 에버리진 원주민은 호주 대부분 지역에 백인들과 같이, 또는 그들의 보호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옛날 생활방식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 ■ 사회문화적 특징

- 광대한 국토, 적은 인구, 풍부한 자원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 상대적으로 비경쟁적 사회 (uncompetitive society) 분위기
- 개인존중과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사상적 기초 위에서 평등주의 (egalitarianism) 사상이 강함.
- 백호주의의 점진적 폐지, 다민족,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를 지향하나 전통적 유럽 편향의 성향이 잔존
- 사회복지 국가지향
  - 평등주의 및 이상국가 실현의 진보주의적 이념이 기초

### Ⅲ. 기관 및 시설 방문

#### 1. 캔터베리시(시청, 시의회) 방문

##### 가. 방문개요

○ 일 시 : 2008. 5. 1(목) 10:30

○ 방문내용

캔터베리시(의회)를 방문하여 현지 시의원인 남기성의원의 도움을 받아 본회의장에 입실하여 호주의 의회운영 및 제도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문답하며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짐.

○ 기본현황

■ 면 적 : 34km<sup>2</sup>

■ 인 구 : 약 15만명(2008년 현재)

■ 위 치 : 뉴 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시 서남방 약 17km 지점

■ 기 후 : 온대성 기후

■ 지역여건 및 특색

- 주변 38개 소도시와 함께 세계3대 미항의 하나인 시드니 도시권 형성
- 소규모 공업이 발달하였으나 우수한 대중교통과 광범위한 도로망은 지역 전체를 관통함.
- 안정된 인구증가율(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음-인구집중현상 및 행정수요의 집중현상을 보임)
- 실업율의 증가와 취업률 저조가 문제
- 다양한 문화와 전통, 역사가 혼합된 다문화 지역
- 우리나라 교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캠시” 한인타운 형성(시드니 : 약 5만여명, 캔터베리시 : 약 1만여명)
- 1988년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자매결연 맺고 있음

[이하 내용은 간담회 중 우리구 의원과 캔터베리시 남기성 의원간 질의답변 및  
관련자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함]

## 나. 의회 일반현황

- 의원정수 : 9명
- 의회구성 : 선출된 시의회는 시장과 9명의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
- 선거구 : 동쪽과 서쪽 그리고 중앙지구의 3개 선거구
- 의회의 성격 : 총괄지배인형
  -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은 의회에서 임명한 전문행정관이 수행토록 하여 정책결정과 집행을 분리하는 형태임.(시의원들이 공동으로 집행부 역할)
  -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는 없으며, 분기별로 국장이 주요업무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을 취함.
- 회기운영
  - 회기는 2주에 1회 정기회(오후 19시)를 개최하며 현안안건이 있을시마다 수시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선출된 지방의원의 신임도나 권위는 절대적이며 무보수 명예직임.

## 다. 시정부 일반현황

- 시정부 구성
  - 선출된 시의회 의원들과 고용된 공무원으로 구성됨(시의원 9명, 시장 1명)
  - 의원임기 : 4년
  - Canterbury시 정부는 3개의 구역과 각각 3명의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됨
  - 1993년 지방정부 법령에 따라 의원들은 예산, 이자율, 정책 등과 현안사항에 대한 결정에 참여
  - 지방정부의 공무원 : 모두 계약직이며, 그만큼 보수도 상대적으로 많음.
- 지방정부에는 헌장이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 즉 주 정부의 헌법과 같은 격을 가짐. 헌장은 주 의회가 제정하여 부여함.
- 지방정부는 인사권, 재정권 등 중앙정부(연방정부, 주정부)와 완전히 독립
- 지방정부의 역할
  - 공원, 정원관리, 수도관리, 오물수거, 가로등 관리, 건축관리, 공공문화시설의 개발 및 유지 등 지역주민의 복지(포괄적)에 해당하는 모든 일을 담당

## ■ 참고자료 - 호주의 정치제도

### ○ 개 요

- 영국식 내각책임제에 미국식 연방제도를 도입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
- 헌법상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 ○ 국가원수

- 형식상 영국여왕이 국가원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방정부는 연방총독이, 6개 주정부는 총독이 대표
- 연방총독은 영국여왕을 대신하여 외국 국가원수 및 대사접견, 내각선서, 훈장수여, 의회개원 등 의례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수행
- 연방총독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영국여왕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

### ○ 지방분권제 발달(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간 권한이 분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연방및주정부의 공통기능
국방	경찰	공원관리	사법(재판)
방역	토지개발	수도시설	주택
항공	교육	오물수거	세금
대학교육	도로관리	공공위생	차관승인
금융정책	광산	건축관리	보험
국제교육	병원	위락시설	노동쟁의
통신, 우편	지방정부	공공도서관	통계처리
해양운수	통계처리	주민사업보호	수단관리
외교 및 국제관계	항만하천관리	공공문화시설의 개발 및 유지	공공보건위생
전 호주철도 교통	관계시설 및 수력자원		원주민 보호관리
세금정책 및 관세	철도 및 도로수송 관리		기업운영의 규제와 관리
각종사회보장의 현금교부	각종 사회복지 시설운영		
	초·중·고 교육관리		

## ○ 의회

### - 상원

- 6개주에서 각 12명, 연방직할 2개 Territory에서 각 2명씩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76명 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의장을 선출한다.
- 임기는 6개의 주는 6년(매 3년마다 반수를 새로 선출), 2개 특별구역의 경우 3년
- 각종 법률안을 검토하며, 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

### - 하원

- 인구비례에 의해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14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정당을 대표한다.
- 하원 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하원의장을 선출한다.

### - 행정부

- 총리는 헌법상 기관은 아니나 관례적으로 하원 다수당에서 선출하며, 총독이 임명
- 내각은 Cabinet Minister와 Outer Minister의 각료로 구성되며, Outer Minister는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만 각료회의에 참석

### - 사법부

- 연방최고법원, 연방법원, 주 최고법원 및 주 지방법원으로 구성
- 선거소송법원 별도운영
- 연방최고법원 : 대법원장 및 6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내각의 권고에 따라 총독이 임명, 정년 70세) ; 일반 상고사건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간의 권한 확정 분쟁 관할



캔터베리시의회를 방문하여 남기성 시의원과 간담회를 통하여 호주의 지방정부제도와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 내부를 견학(2008.5.1. 10:30)

## 라. 방문결과

### ○ 지방의회는

-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이며 주민들과 밀접한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은 의회에서 임명한 전문직 공무원이 수행토록 하며,
- 집행부에 대한 특별한 감사나 조사는 없으며, 분기별로 전문행정관이 주요업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시의회 만족 사업도 및 지역사회 관심사항을 항목별로 평가하고 있음.
- 회기는 2주에 1회 오후 19시에 개최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의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안안건이 있을시 수시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의지가 강하며 지역주민들로부터의 권위를 부여받아 활동함.
-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선거운동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연방정부, 주정부)와 독립되어 있으며

- 지방정부에서는 공원, 정원관리, 수도관리, 오물수거, 가로등 관리, 건축관리, 공공문화시설의 개발 및 유지 등 모든 일을 담당하고 있음.
- 세입은 중앙정부에서의 지원이 없으며, 주택세(재산세), 쓰레기수수료, 하수도 처리료가 주가 되며, 부족한 재원은 지방은행에서 차입하여 쓰고 있음.
- 공무원은 주로 담당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음.

### ○ 기타사항

- 주민들은 정치에 적극적인 참여는 하지 않고 있으나 지역의 현안문제 등이 있을시 진정, 건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지지정당과 지지후보를 동시에 투표하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투표를 제고를 위하여 투표 불참시 벌금(60불~200불)을 부과하고 있음.

## 2. The Salvation Army(구세군) 방문

### 가. 방문개요

- 일 시 : 2008. 4. 29(화) 10:00 ~ 11:20
- 위 치 : 뉴 사우스웨일즈주 Ashmore city Southport Wardoo Street 173
- 방문내용  
범 세계적 복지기관인 The Salvation Army(구세군)을 방문하여 알코올, 마약중독, 가정폭력, 극빈자, 상습도박 중독 등의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및 구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방법 등을 청취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짐.

[이하 내용은 방문 중 질문과 시찰내용, 관련자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함]

### 나. 구세군의 주요 활동(지원서비스)

- 지역사회 서비스
  - 260개 지역사회 서비스센터에서 가정적인 어려움과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인 긴급보호를 제공
  - 매일 1,300여명의 사람들이 가족복지와 법적인 도움 및 기타 보조를 받고 매년 520,000여건의 지원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 아동을 위한 서비스
  - 크리스마스를 위한 장난감 선물
  -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 운영(1월과 부활절)
  - 집안일(숙제) 도움과 아침식사 제공을 위한 클럽 운영
  - 아동보호센터 운영
  - 자살로 인해 남겨진 아이들을 위한 지원
  - 청소년 레크레이션 센터 운영
  - 키드클럽과 캠프를 포함한 교회 활동

## ○ 위기&지원시설 제공

-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 제공
  -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보호소
  - \*위기와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 보호소
  - \*공동체 하우스 운영
- 매일 밤 2,250여명의 노숙자들이 수용되고 매년 3,000여건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 불우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과 노숙인들을 위해 지원을 해 주는 동시에 문제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춰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레크레이션 및 레저센터 운영
  -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결합 추진사업
  - \*빈곤자 단체를 위한 구제활동 차량 및 아무 부담없이 지원하는 센터운영
  - \*사례관리 및 상담
  - \*고용 및 훈련 서비스
- 매일 호주 전역의 약 800여명의 청소년들이 지원받고 있음.

## ○ 고용서비스 제공

- 실직자들을 성취감을 느끼며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직업인이 되게 하기 위한 고용서비스 제공
  - \*구세군 고용플러스 직업배치 서비스
  - \*학교를 조기포기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40세 이상 실직자를 위한 “Mature workers program” 운영
  - \*원주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직장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구세군의 고용플러스는 매년 160,000여명의 지원자들에 대해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0,000명이 넘는 고용실적을 내고 있음.

### ○ 회복(재생) 서비스-브릿지 프로그램

- 도박, 약물, 알콜 중독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한 회복(재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장기 거주 프로그램

\*작업치료(산업 및 농업센터)

\*알콜(마약)중독 치료 센터 운영 및 중독에 의한 뇌손상 치료

- 매년 30,000명 이상이 브릿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당한 회복(재생)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연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음.

### ○ 긴급지원 서비스

- 긴급지원 서비스(SAES)의 목적은 응급상황과 재해로 인한 희생자, 관련자, 공무원들에게 희망과 격려 및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임.
- 태풍으로 인한 대량참사나 산사태, 파괴적인 산불 등 모든 주요 재해 현장에서 함께 하며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 가족연계 서비스

-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서로 찾아주고 그들을 재결합 시켜주는 역할을 100년이 넘게 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00여명을 성공적으로 돕고 있음.

- 이외에도 구세군 센터에서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 있던 사람들에게 “영어 말하기 교실” 서비스, 병원위문 방문이나 간호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보호봉사” 활동, 노인들을 위한 보호와 수용시설 제공 등과 “노인 케어”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1년 내내 24시간 “전화상담” 운영, “전문직 상담”, “법정&교도소 서비스” 등 일부계층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다양하고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사업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음.



범 세계적 복지기관인 The Salvation Army(구세군)을 방문하여 주요활동 및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시설 견학(2008.5.1. 10:30)

## 다. 방문결과

- 구세군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모든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지원해주고 호주의 사회적 문제들을 덮어주는 우산과 같이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방대한 범위의 서비스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보호·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
- 광대한 국토, 적은 인구, 풍부한 자원으로 높은 생활수준을 향유하며 상대적으로 비경쟁적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평등주의 및 사회복지 국가지향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특징이 있음.

## ■ 참고자료 - 호주의 사회보장 및 복지제도

호주의 주정부는 연간 국민총생산고의 1/4을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에 책정하고 있다. 호주의 사회복지제도는 1901년에 연방이 시작된 이래로 1909~1910년, 노령연금 및 장애인 연금을 도입하고 다시 1921년에 인구증가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출산수당을 도입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장과는 달리 일정한 자격조건에 도달하는 경우 무료로 혜택을 받도록 정비해 놓은 제도이다. 크게 의료제도와 직업교육 및 재훈련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 ○ 의료제도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병원은 치료비가 거의 무료이며, 의료수준 또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기술자의 혜택을 직접 받아본 사람만이 호주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말이 통상적으로 쓰일 정도로 호주의 의료제도는 뛰어나다.

연방정부 보건부는 보건에 관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호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 등을 관리한다. 한편 주정부 산하 보건부는 간호의 질적수준

유지 등 여러 의료서비스의 실제적인 일들을 관리하고, 각종 공립병원과 공공 보건센터를 운영한다.

각 지역별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초적인 건강을 관리하는 Family Doctor가 있다. 이 의사들은 환자의 일반건강진단에 따른 약의 처방을 해주며, 병 증세에 따라 전문의를 소개한다. 예약없이 찾아가면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일반의가 검진 후 전문의에 의뢰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서면의뢰증을 환자에게 주고 전문의를 추천한다. 이런 절차에 의해 환자는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공립병원은 주정부 이상의 상급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치료비는 거의 무료이다. 사립병원은 대부분 공립병원보다 소규모로 조용하고 대우가 좋지만 사설의료보험에 들지 않는 한 치료비가 상당히 비싸다.

#### ○ 의료보험

호주의 의료보험제도는 크게 호주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사설의료보험의 대표적인 것으로 Medibank Private가 있다.

##### - Medicare(정부 의료보험)

Medicare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제도로 호주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면 나이, 수입,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Medicare혜택은 국공립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 침대사용을 포함한 숙식비, 일반인의 치료 또는 담당일반의가 추천한 전문의의 치료비, 간호비, 치료에 필요한 약값 등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 Medibank Private(사설 의료보험)

현재 호주에서 약650만명 이상이 사설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사설의료보험에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엑스트라 커버를 원할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임차료가 저렴한 편이나, 멜번의 기후환경이 좋지 않은 관계로 보온시설이 된 주택을 찾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드니보다 비싼 편임.

- 호주의 직업교육 및 훈련

호주의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프로그램은 JET라는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JET란 Job Education & Training으로 일정조건에 포함되는 호주인들에게 무료혜택을 주는 복지기관이다. 호주의 영주권자·시민권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민자들 혹은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당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JET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ET에서는 직업을 찾아주거나 그에 필요한 실제적인 조언과 도움, 재정적·기타지원 등을 받게 된다.

○ 연금제도

연금제도는 고령자, 장애자, 미망인 등 일정기준 이상으로 국가의 보조가 필요한 영주권자·시민권자에게 1주당 연금을 정하여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수당제도는 저소득, 이주, 실업, 질병, 난민, 재해, 자녀양육, 학생 등의 적절한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제도이다. 연금이나 수당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과 자산평가를 거친 후에 일정조건이 갖춰지면 지불된다.

- Family Allowance(가족수당)

Family Allowance는 자녀의 양육비용을 돕기 위해 격주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1999년 10월 1일부터 Family Allowance의 대상이 16세부터 24세까지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가족수당금액은 수입평가와 자산평가를 통하여 결정된다.

- 출산수당

출산수당은 호주국내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가족수당의 한 종류이다. 현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경우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A\$750의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 Youth and Students(청소년 및 학생)

호주정부는 학업중인 학생이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AUSTUDY와 ABSTUDY라고 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104주 이상 체류한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지급수당은 나이와 수입,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학생수당은 Parental Means Test라고 하는 부모생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크게 재산평가(Family Assets Test)와 수입평가(Income Test)를 한다.

- 재산평가(Family Assets Test)

재산평가의 경우 은행잔고, 사업체 자산의 50%, 토지 등을 재산으로 간주하며 모든 부동산, 동산을 합한 총자산이 호주달러로 약41만달러 이하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경우 집의 부지가 2헥타르 이하일 경우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수입평가(Income Test)

수입평가는 생활수당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수입원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원까지도 평가한다.

- People with Disabilities(장애자)

심각한 신체적인 장애로 2년 이상의 풀타임 직장(주당30시간 이상)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 정부로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연금 또한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수입평가와 자산평가를 통하여 지급되나 일반가족 수당에 적용되는 자산 및 수입평가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 Age Pension(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은퇴한 사람들과 일정나이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며 노령연금을 얻기 위해선 호주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최소 5년 이상 호주에서 체류, 혹은 총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남자의 경우 만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만61세 6개월 이상일 때 지급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부인연금, 과부연금, 사별수당, 성년배우자수당, 홀부모연금, 약값수당, 새출발수당, 특별수당 등 많은 종류의 연금이 있어 해당 기관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

#### - 이민자들의 사회보장제도 혜택

이민자들이 사회보장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 혜택인 실업자 수당, 환자에 대한 혜택, 학생수당 및 그 외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기간은 영주권이나, 장기체류를 받은 시점이나 호주 입국한 시점을 정해지는데 최근 날짜로 정해진다. 연금과 지체부자유에 대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반드시 호주에서 체류를 해야만 가능하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부의 후원이 없기 때문에 호주에 입국하여 최소한 2년간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 특별수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직업을 구할 능력이 없거나 정착자금을 다 소비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신 호주에 입국한 이후에 배우자의 사망이나, 불구가 된 경우, 유일한 부모가 된 경우에는 수당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호주는 11개 국가와 국제사회보장혜택조약을 맺고 있는데 그 국가에 해당될 경우에는 10년간 호주에 체류를 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3. 시드니 2000 올림픽 파크

#### 가. 개 요

- 주변시설 : 선수촌, 올림픽 광장, 스타디움, 시드니 국제 경기 센터, 주립하키 및 테니스장, 야구장 등
- 수용규모 : 올림픽 스타디움 11만명
-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
  - 매립장 오염에 대한 복구

홈부시베이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에 소금공장으로 출발하여, 벽돌공장, 도축장, 해군기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되었다. 1990년대 초 환경지질 조사에 의하면 홈부시베이 일대의 토양 900만 입방미터가 유해폐기물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2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1993년경부터 환경복구 공사를 착수하여 1998년에 완료하였다.

-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열 전지의 적극 활용, 자연채광, 무동력 환기, 단열 등으로 모든 시설물의 설계에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실례로, 일조량을 고려한 건물의 방향, 자연채광, 환기와 단열, 고효율 설비 등의 도입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였다. 이런 결과로 기존설계 방식과 비교하여 무려 75%의 전력소모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 절수 대책 및 환경보전

수자원의 절약과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한 물의 재처리를 통한 중수대책, 빗물받이 수조설치, 빗물과 중수를 공원(조경수)에 관개용수로 활용, 고효율 설비 등으로 절수효과를 가져오고 환경보전에 기여하였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상)과 올림픽 광장의 전경

## 나. 방문결과

- 시드니 중심가에서 14km 떨어진 홈부시만(Homebush Bay)에 건설된 올림픽 파크는 쓰레기 매립장을 재개발한 곳으로 환경오염지역에 건립되는 만큼 환경보호에 주력해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그린올림픽’이란 모토아래 치루고자 노력하였다.
-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3년 럭비월드컵’이 열린 올림픽공원은 주요 스포츠 경기장과 행사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근의 광대한 공원과 시드니에서 가장 인기있는 레크레이션 구역이자 피크닉 장소인 바이센테니얼 파크와 어우러져 세계 최첨단의 운동경기장 및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었다.

## 4. 기타 방문지

### 가. 시드니 달링하버(Darling Harbour)

현재 시드니 달링하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레저 및 위락의 중심지이지만 10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대단위 공업지대로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방직, 곡물, 석탄 등을 운반하는 선박터미널이 있었다. 그러나 자체 시설 노후화와 컨테이너 선박이 등장하는 등 운송수송수단이 변화하자 점차 황폐해졌다. 마침내 1984년 이 지역의 상업적 부흥을 위해 달링하버건설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뉴사우스웨일스의 200주년 자체 사업으로) 재개발되었다. 결국 달링하버를 ‘황폐한 정박장에서 국제적 해양 위락지’로 발돋움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는 ‘도심지 재개발의 기적’이라고 불리어지기도 한다.

달링하버 재개발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Waterfront(수변)개발의 이상적 모델을 제공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1980년대 달링하버 재개발이 추진되기 전부터 시드니는 오페라하우스와 하버 브릿지를 전면에 내세워 세계적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호주의 금융과 비즈니스 중심지를 벗어나 아시아의 중심지를 지향하던 시드니는 CBD(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불리는 업무중심지구가 계속 확장되면서 150년간의 항구 및 연관산업 지원기능을 유지해오던 달링하버를 오피스 기능의 업무중심지구로 편입시켜 개발을 추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스[NSW]주정부는 달링하버를 CBD로 편입시켜 개발하지 않고 시드니 시민의 여가활동과 해양관광지를 연계하여 개발시켰다.

전통적 항구의 기능을 업그레이드시킨 마리나시설을 비롯하여 상업용 해양크루저, 제트보트 등 해양스포츠 시설을 갖춘 위락형 해양관광 항구로 탈바꿈시켰다. 뿐만 아니라 달링하버 재개발 시 모든 수변을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토록 산책기능을 갖춘 인도를 먼저 설치하고 다음 공간에 쇼핑센터, 레스토랑, 영화관, 수족관 등 비즈니스 시설을 유치하였다. 그 다음 공간에는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였으며 비교적 공간이 풍부한 달링하버 남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컨벤션센터, 중국정원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달링하버 재개발 사례에서 볼 때 수변에 가까운 곳은 일반인을 위한 공간으로 배려하였으며, 일반인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센터나 레스토랑을 다음공간에 배치한 점도 특징인 위주의 개발이 아닌 일반인 위주의 개발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 공간은 도로를 배치하였으며 수변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공간에는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특정 숙박업체가 수변을 차지한다던지 수려한 조망권을 독차지하는 일반적인 사례를 방지하였다.

그리고 수변개발 시 바다를 일부 매립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오히려 항구 내에 있던 옛 항만시설을 철거하여 항구를 넓히는 등 친수 공간 확보에 주력하였다. 결국 달링하버 수변개발은 단기적 수익성 위주의 상업적 개발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보고 시드니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시드니 관광산업과 철저히 연계시켜 시민 여가시설과 관광객 위주의 시설을 접근이 가장 용이토록 배치하여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달링하버 수변공간(일반인들의 보행로를 따라 정박해 있는 요트)

## 나. 블루 마운틴 국립공원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블루 마운틴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악지대이다. 약 1,000m 대의 산맥을 뒤덮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증발된 유액이 강한 태양빛에 반사되어 푸른 안개처럼 보이기 때문에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지형상 평면을 유지하는데 이곳은 1000m 높이의 구릉이 이어지는 계곡과 폭포, 기암 등이 계절에 따라 계속 변화하므로 장관을 이룬다. 이런 블루 마운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은 '에코포인트'라는 전망대로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만큼 유명한 곳이다. 멋진 일출은 물론 블루 마운틴의 상징인 '세자매 바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유래가 내려오는 이 바위는 원래는 일곱 자매였는데 오랜 침식작용으로 인해 지금은 세 개의 바위만이 남았다고 한다



블루마운틴 에코포인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세자매봉 전경

#### 다. 오페라 하우스

세계 3대미항 시드니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빼놓을 수 없는 관광명소가 오페라하우스다. 시드니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는 호주 건축사에서, 나아가 세계 건축사에서도 손꼽히는 건축물이다. 오페라하우스는 106만 5000장의 타일을 요트모양으로 만든 지붕, 오렌지를 잘라놓은 듯한 독특한 반원추형 외형과 그에 어우러진 주변경관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자리 잡았다.

현재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찬탄을 받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지만 완공까지는 우여곡절이 숨어 있다. 변변한 오케스트라 공연시설조차 없었던 50년대 후반 호주정부는 이 나라를 대표할 만한 오페라하우스를 수도 시드니에 짓기로 하고 국제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그 당시로는 무명이었던 덴마크출신의 30대 건축가 요한 우촌(Joern Utzon)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완공되기까지는 14년(1959년 착공, 1973년 완성)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예정공사기간 5년의 3배에 가까운 세월이다. 현대 건축기술로는 건물을 짓기 힘들다는 당시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당연히 어려운 시공기술이 요구돼 각종 난관에 부딪혔다. 시공의 어려움에 비례해 건설비용은 밀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늘어났고 호주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설계자인 우촌은 비판과 비난에 견디질 못하고 결국 완공을 보지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갔다. 호주의 건축가들이 우촌의 뒤를 이어 공사를 진행한 끝에 1973년 듣도 보도 못한 괴기한(?) 오페라하우스가 탄생했다. 오페라 하우스의 내부는 콘서트홀을 중심으로 4개의 커다란 홀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1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오페라 극장을 비롯하여 2900명이 들어설 수 있는 콘서트홀이 있고, 544석의 드라마 극장, 288석의 스튜디오, 400석의 연극무대로 구성되어 있다. 준공 이후 오페라하우스는 캥거루와 함께 호주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자리잡았고 매년 이 건축물을 보러 호주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물론 문화도시라는 명성도 함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전경

## IV. 訪問結果

호주는 천혜의 자연을 자원으로 갖고 있는 나라로 남반구 최대의 양털 생산국, 노동자의 천국, 환경이 전혀 오염되지 않은 나라, 사회보장 제도가 잘 정립된 나라, 다민족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78배에 달하는 육지 면적으로 아름다운 도시와 환경. 세련된 거대도시와 지상낙원이라 할만한 해안이 있는가 하면 그 너머엔 황량하면서도 신비로운 대자연이 있는 곳, 나무 한 그루, 앉아 쉴 만한 벤치 하나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대도시들과 달리 호주의 도시들은 그야말로 건물 반, 공원 반의 녹지공간이 즐비하여 도시 전체가 관광지이며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돌, 나무 한 그루 건물 자체가 모두 관광상품인 것 같았다.

호주의 도시들이 왜 항상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곳인지 그리고 계속되는 이민으로 다인종이 모여 살면서도 갈등은 드러나지 않고 다문화 정책으로 놀라운 문화 발전과 관광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인지,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도시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 호주를 동서로 횡단하려면 자동차로 10여일이 걸리고 호주의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면서 역사와 문화를 둘러보려면 6년이 걸린다고 한다. 4박6일의 짧은 일정동안 호주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선진지 현지 상황을 보고, 듣고, 느끼고 확인하며 비교한 부분을 향후 의정활동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1. 의정·의회분야

#### ○ 시정부 구성(시의회 - 총괄 지배인형)

- 선출된 시의회 의원들과 고용된 공무원으로 구성
- 임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4년
- 의회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은 의회에서 임명한 전문행정관이 수행토록 하여 정책 결정과 집행을 분리하는 형태로 되어있다.(시장은 집행 결정만 할 뿐 집행결과에는 관여치 않으며 의회와 집행부와의 마찰이 없음)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일절 지원없이 완벽한 독립정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인사권, 재정권 등이 완전히 독립된 정부로 이루어지고 있고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엄청난 상속세(83%)와 누진 소득세, 그리고 주택세(재산세)를 주로한 간단한 세정제도를 택함으로서 부족한 예산을 지방은행에서 차입하는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었다.
- 공무원은 주로 담당 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높은 보수를 지급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 있다.
- 호주에서 선거는 정기적으로 치러지며 강제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선거방식이 있다. 지지정당과 지지후보를 동시에 투표하는 선거제도는 당선자와 지지정당이 서로 달리 나타나는 투표결과를 통해 소속 정당의 위세를 배경으로 삼을 수 없는 준엄한 국민의 선택이 표출되고 있었고, 그 이면에는 2차례 투표 불참시 50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서 강제도 자율도 아닌 국민의 정치 참여를 통해 완벽한 지방자치 참여를 실시하고 있었다.
- 소도시의 경우 시의원이 순번제로 시장(MAYOR)를 맡으면서 지방의회 의정 활동과 市政을 연계하는 실리적인 지방자치제를 택하고 있으며 우리가 방문한 켄터베리시와 같이 규모가 큰 도시에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은 명예직으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행정은 의회에서 선임한 전문 행정관에 의해 집행되므로 시장은 집행 결과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므로 회의는 2주에 1회 정기회(오후 19시)를 개최하며 현안안전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호주에서 의원들의 위상은 상당히 높으며 의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주민 민원사항 등 정책에 관한 연구과제를 주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연구토록 하고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책 결정 권한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고 집행부는 집행 결정에 대한 시행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요 정당들은 소속 의원들이 정당의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선출된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자신의 정당의 이익과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호주 선거의 기본은 정책대결을 중시하고 있으며 인물중심의 정치문화와는 아직 차이가 많다.
- 참고적으로 호주 국회에서는 회의가 시작되기 5분전에 벨을 울려 의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안내하고 회의 시작 후 5분이 지나면 문이 닫히며 입장할 수 없게 된다. 회의 출석이 불량하거나 불필요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회의를 방해하면 즉석에서 퇴장처분을 받게 된다고 한다.

## 2. 도시·교통분야

- 시드니 도로의 대부분은 4차선이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차량은 도로 좌측으로 주행하게 되어있다. 교통에 관한 규제가 엄격하여 도로주행 중 우선도로와 만나는 곳에 “STOP”표지판이 있으며 우선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이 없더라도 반드시 “일단정지”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는 대부분 무료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터널 등 일부에서는 유료화하고 있다.
- 호주는 지방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이 자주 보이지는 않았으나 안전벨트 착용,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상상외로 엄

격하다 한다.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따른 책임 부담과 보험 보상기준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심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형사 책임을 묻기도 한다.

- 호주는 음주운전자에게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며 침단의 측정장비를 가지고 음주여부를 측정하고 있으며 운전업종에 종사하는 직업군에 대하여 음주측정 zero화를 추진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8개월의 징역과 3,300불의 벌금을 부과하며 5년 사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의 징역형과 5,500불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광활한 국토 면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업무시설 지역과 주거지역이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있어 도시 내 주차난 등은 볼 수가 없었고, 학교 주변에서는 스쿨 존(school zone)이라 하여 차량 주행 속도를 평일과 휴일에, 또 출퇴근 시간대와 낮 시간대를 달리하며, 출퇴근시간 외의 시간에는 도로 곳곳에 주차를 허용하는 실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스쿨 존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방송 보도에서 보듯이 형식적인 제도에 지나지 않고 있으나 호주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스쿨 존 제도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고 하며 위반 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국민 스스로의 인식과 위반 시 강력한 제제로 법규의 정착에 노력하는 법 행정을 엿볼 수 있었다.
- 저녁 퇴근시간대에 시드니 중심 사무지역에서 일부 차량 정체현상을 볼 수 있었으나 시드니의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항공기와 철도, 다양한 노선의 버스와 해상에서도 운행하는 해상택시 등으로 인해 교통수단이 분산되어 있으며 내국인 위주의 정책에 따라 우리 시찰단이 이용해본 시드니 국제선 공항 청사보다도 호주 국내선 공항 청사가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더 웅장하고 쓰임새가 있었다.

- 시드니에는 시찰단이 보기에 교통혼잡이 거의 없었으나 주 정부는 시내 관광의 목적을 겸한 모노레일과 시 외곽지역 이용을 위한 트램(Tram)이라 불리는 경전차를 운행하여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면서도 시내 관광을 위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었다.
- 도시의 주택은 자외선 햇볕이 강렬한 자연환경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 기와와 같은 독특한 도시미를 간직하고 있었으며 개인 집집마다 앞뒤 마당에 넓은 뜰과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의 심각한 주차난과 비교가 되었다.
- 도로변과 보행로 사이에 턱이 낮아 차량을 주차시킬 때 안전하였으며 큰 도로든 이면도로든 어느 곳이든 주차금지 표시판이 없는 곳에는 차량주차가 가능하였고, 시드니를 비롯한 도시 도로변에는 우리나라처럼 큰 도로 이정표대신 교차로와 눈에 잘 띄는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만큼의 도로 이정표를 설치해 놓아 도시미관을 가꾸고 있었다.
- 방문한 시드니와 캔터베리시 등에서 우리 시찰단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수막과 입간판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자연환경 그대로의 정책을 중시하는 호주는 도시 내 들끓는 파리도약을 쳐서 함부로 죽이지 않고 오히려 파리의 발생을 억제하는 생활방식을 실천하면서 생활해 오고 있는 만큼, 상가나 사무실에서 입간판 등을 제작 설치할 때에는 관공서의 설치 허가를 득한 후 허가된 규격내의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설치 시에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관공서에서는 무분별한 허가를 남발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설치에 따른 벌금액은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으로 규제할 것은 규제하는 엄격한 법 집행을 실현하고 있었다.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변이나 대도시 도로변에는 에너지 절약과 운전자의 시야 보호를 위해 네온사인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관광의 도시 시드니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도시경관을 위해 네온등을 밝히고 빌딩의 빈 사무실에도 불을 켜두는 등 관광수입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돋보였다.

### 3. 공원 · 녹지분야

- 호주는 공원이나 유명 음식점에는 파리가 많다고 한다. 이것은 호주의 환경정책의 영향으로 약을 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호주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약을 치면 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이나 곤충까지 죽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또 다른 약을 개발해야 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호주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의 하나라고 한다.
-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광활한 면적의 초원과 산하나 보이지 않는 넓은 대륙인 관계로 대부분의 자연환경이 공원 자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곳곳에는 자연 그대로를 옮겨놓은 환경에 온갖 식물과 돌, 분수 등 인공공원을 조성하여 새로운 명소로 탄생시켜 놓은 곳이 많았다.
- 이곳에 체육, 피크닉, 휴게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음은 물론 점심시간을 이용한 직장인들의 조깅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 또한 물이 부족한 지역이지만 도시의 명소마다 인공호수를 조성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인공미와 더불어 일부 호수의 물은 정수하여 식수로 공급되기도 한다.

- 도시지역의 가로수 및 도로변 나무는 주로 호주 자생나무인 자카랜다나무(보랏빛의 꽃)가 많았으며 공원 어느 곳에서나 보랏빛의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 4. 문화 · 관광 · 교육분야

- 호주의 정책은 관광, 이민, 유학제도 이 세가지가 대표적인데 첫 번째가 관광 산업으로 정책의 최우선권을 두고 추진한다.
- 옛것과 현대적인 것, 그리고 미래적인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건물은 어느 것 하나 관광상품으로 제외될 것이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의 독특함과 기법이 나타나 있으며, 건물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다.
- 시찰단이 견학한 시드니 달링하버는 ‘황폐한 정박장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레저 및 위락의 중심지’로 재개발한 곳으로 수변(waterfront)개발의 이상적 모델을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시드니 시민의 여가활동과 해양관광지를 연계하여 개발시켰기 때문으로 모든 수변을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토록 산책기능을 갖춘 인도를 먼저 설치하고 일반인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센터나 레스토랑을 다음공간에 배치한 점 등은 특징인 위주의 개발이 아닌 일반인 위주의 개발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달링하버 수변개발은 단기적 수익성 위주의 상업적 개발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보고 시드니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시드니 관광산업과 철저히 연계시켜 시민 여가시설과 관광객 위주의 시설을 접근이 가장 용이토록 배치하여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재개발 계획 추진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호주의 교육제도와 현장을 제대로 둘러볼 시간이 여의치 않았으나 호주의 교육과정은
  - 초등교육(6년), 중등교육(4년), 고등교육(2년) 및 대학교육(4년)으로 구성되며
  - 의무교육은 초등(6년) + 중등(4년)의 10년으로 구성된다.
  - 대학을 제외한 공립교육과정(12년)은 무상이며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아래 지방정부가 관장 한다. (대학은 자율적으로 운영)
  - 대학, 대학원생은 호주 나이로 21세까지 3년 동안 장학금 성격의 용돈을 받고 다니며 저렴한 등록금은 용자가 가능하다.
  - 대학 졸업후 자기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후 수입이 2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매년 용자받은 학비의 30%씩을 상환하여야 하며 만일 대학 전공과 관련 없는 직종에 취업할 경우에는 용자 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에서 대학으로 지원)
- 호주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학력에 따른 보수의 차이가 없으며 사무직과 기술직의 보수 차이도 없다. 이는 10년의 의무교육을 마친 후 각자의 개성과 적성에 따라 대학이나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라 불리는 기술 전문 교육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며 사무직과 기술직에 따른 국민의 편견이 호주에는 없기 때문이다.
- 호주에서는 유학제도를 산업의 차원에서 수익사업으로 관리한다. 유학생 유치 제도의 마케팅으로 세계 각국 학교에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를 나가며 기존에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활용하므로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
- 교육은 영국식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연간7~ 8천명이 유학을 온다고 하는데 1인당 평균 비용은 1,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 5. 청소분야

- 호주는 선진국이므로 우리나라 청소행정과는 모든 시스템이 선진화 되어있으리라 생각했으나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았다. 다만 도시개발에 접근하는 사고의 방식, 즉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도시정책,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청소행정의 효율성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 쓰레기는 생활쓰레기, 건설쓰레기, 병원 및 산업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었다. 생활쓰레기는 침출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분함량이 극히 적고 전체 쓰레기 중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히 적은 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의 문화가 없어 물기나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는 음식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중 녹지부산물도 1/3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특성상 대단위의 공원과 함께 주택별로 소규모 정원을 보유하고 있는 주거형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호주는 2차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로써 일반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전체 쓰레기 중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많지 않으며, 호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앞서있는 의학분야 및 약학분야의 성장으로 인하여 약학과 의학분야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한다.
-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비닐봉투를 사용치 않으며 각 가정과 건물에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와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담는 두 가지의 쓰레기 용기가 비치되어 있다. 재활용 쓰레기는 종류별로 따로 배출하거나 수거하지 않으며, 쓰레기 선별공장으로 반입하여 재활용 가능한 원료로서의 상품성 확보를 위하여 종류별로 선별한다.

- 재활용 사업은 상당한 이윤이 창출되는 사업이라 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는 매립하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적환장으로 반입하고 있다. 반입된 쓰레기는 원거리의 매립지와의 운송비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압축시설을 이용 비중을 1/2정도로 압축하여 매립 처리하고 있다.
- 골드코스트 지역 매리맥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시설은 환경을 중시하는 최신 설비와 기법을 활용하면서 하수처리장 정화조에 발생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정화조 내벽을 청소하는 브러쉬가 양방향으로 24시간 가동되고 있어 시설운용의 치밀함을 느낄 수 있었다.
- 특히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은 전에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각종 경기장과 온갖 식물과 새들과 그리고 공원이 조성되어 누가 봐도 쓰레기 매립장 이었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시설이었다.

## 6. 기타 분야

- 이번 호주시찰 기간동안 우리의 가슴을 뿌듯하게 했던 것은 시내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호주 국민들이 시용하고 있었던 점이다. 시내를 달리는 차들을 보면 어김없이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볼 수가 있었고 더욱이 과거처럼 차량가격이 저렴해서 외국인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성능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한다는 현지에서의 말과 외국인이 주로 찾는 관광지에서는 한국어로 된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는 점에서 이제 당당한 세계 경제대국으로 나가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느낄 수가 있었다.
- 기타 여러 분야의 자세한 연찬 기회를 가질 수 없어 아쉬움이 크지만 호주는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의료·교육·농업분야 등에 있어서

는 철저하리만큼 내국인 보호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나 들을 수 있는 농약이 첨부된 음식물은 있을 수가 없고 전액 무료 진료와 출산 장려금·자녀모유비까지 지원되는 의료 복지제도는 부러움까지 들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선진 해외비교 시찰을 통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에 있어 많은 부분에서 아직 선진국이라 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당장의 정책 실천은 어렵지만 금번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 의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 개발을 통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펼쳐야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금번 비교시찰이 일회성 외국 나들이가 아닌 향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선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접목시켜 선진의회로 거듭 나도록 노력해야겠다.

2008.4. 28 ~ 5. 58(6박 8일);  
말레이시아, 태국 4개기관

# 말레이시아,태국 비교시찰 결과 보고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

# 目 次

I. 概 要 .....	2
II. 細部推進日程 .....	4
III. 訪問國 概要 .....	5
IV. 訪問 機關別 視察內容 .....	7
1.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시 청 .....	7
2. 수방자야 구청 .....	10
3. 파타야 시청 .....	14
4. 태국한인회 .....	15
V. 機關別 比較視察 結果 .....	25

# I . 概 要

## 1. 推進背景

- 신흥 개발국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여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개발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의견교환 기회를 가짐으로써 도시디자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도시디자인 구상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 태국의 관광산업의 현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그들의 지원 정책을 시찰하고 현지 한인사회가 그들에 미치는 영향 과 자구적인 복지정책 등 문화관광 관련사항들을 체험함으로써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2. 推進根據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2조제4호
-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계획(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1029(2008. 3.26))

## 3. 訪 問 國 : 말레이시아, 태국

## 4. 訪問機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시청, 수방자야 구청
- 태국 : 파타야 시청, 태국한인회

## 5. 期 間 : 2008. 4. 28 ~ 5. 5 (6박 8일)

## 6. 報告書 作成者 :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말레이시아,태국 비교시찰 방문단)

7. 訪問者 名單：총 14명(의원 10명, 수행직원 4명)

연 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비 고
1	부평구의회	의 장	권 상 철	
2	도시경제위원회	위 원 장	박 창 재	단 장
3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최 병 윤	
4	도시경제위원회	의 원	신 은 호	
5	〃	의 원	이 언 기	
6	〃	의 원	이 재 승	
7	〃	의 원	장 숙 자	
8	〃	의 원	김 영 희	
9	〃	의 원	박 종 혁	
10	행정자치위원회	의 원	정 재 서	
11	의회사무국	국 장	김 평 달	수 행
12		전문위원	권 순 철	〃
13		의사팀장	고 병 석	〃
14		직 원	황 용 하	〃

## Ⅱ. 細部推進日程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4. 28(월) (1일차)	15 : 15 18 : 15 23 : 45 01 :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평구청 집결 및 출발</li> <li>▪ 인천국제공항 출발</li> <li>▪ 쿠알라룸푸르 세팡 국제공항 도착</li> <li>▪ 호텔이동후 체크인</li> </ul>	KE671
4. 29(화) (2일차)	08 : 00 09 : 00 12 : 00 13 : 00 18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 및 조식</li> <li>▪ 쿠알라룸푸르 시청방문</li> <li>▪ 중식</li> <li>▪ 패트로나스 투윈타워, 왕궁</li> <li>▪ 석식후 호텔 투숙</li> </ul>	
4. 30(수) (3일차)	08 : 00 10 : 00 12 : 30 14 : 30 18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 및 조식</li> <li>▪ 켄팅하일랜드 관광산업 시찰</li> <li>▪ 중식</li> <li>▪ 수방자야구청 방문</li> <li>▪ 석식 후 호텔 투숙</li> </ul>	
5. 1(목) (4일차)	08 : 00 10 : 20 12 : 20 13 : 30 15 : 30 18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식 및 호텔 체크 아웃</li> <li>▪ 공항이동</li> <li>▪ 쿠알라룸푸르 출발</li> <li>▪ 방콕국제공항 도착</li> <li>▪ 방콕 → 파타야 이동</li> <li>▪ 석식 후 호텔 투숙</li> </ul>	
5. 2(금) (5일차)	07 : 00 10 : 00 12 : 00 14 : 00 18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 및 조식</li> <li>▪ 파타야 시청방문</li> <li>▪ 중식</li> <li>▪ 산호섬 견학</li> <li>▪ 석식 후 호텔 투숙</li> </ul>	

일자	시간	주요일정	비고
----	----	------	----

5. 3(토) (6일차)	18 : 00	▪ 조식 및 호텔 체크아웃	
	09 : 00	▪ 파타야 → 방콕	
	12 : 00	▪ 중식	
	14 : 00	▪ 태국한인회 방문	
	18 : 00	▪ 석식 후 호텔 투숙	
5. 4(일) (7일차)	08 : 00	▪ 조식 및 휴식	
	12 : 00	▪ 중식	
	13 : 30	▪ 국립박물관, 왕궁, 수상가옥	
	17 : 30	▪ 석식	
	19 : 00	▪ 태국 전통야시장 등 견학	
	22 : 00	▪ 공항도착 및 출국수속	
5. 5(월) (8일차)	01 : 30	▪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 출발	KE654
	08 : 50	▪ 인천국제공항 도착	
	10 : 30	▪ 의회도착 후 해산	

▶ 상기일정은 현지사정으로 당초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음.

### Ⅲ. 訪 問 國 概 要

#### 1. 말 레 이 시 아

##### 가. 역사

- 아름다운 해변과 크고 작은 섬들과 정글로 뒤덮인 산악 지대와 휴양지가 공존하는 곳인 말레이시아는 15세기 말레이 반도 남부에 말라카 왕국이 세워졌으며, 18세기 이후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에 의해 점령 되었고, 19세기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 군정 하에 있다가 종전 후 다시 영국 보호령 말라야 연방이 되었다. 1963년 영국 식민지였던 동말레이시아의 사라왁과 사바, 싱가포르까지가 독립 연방국 말레이시아로 되었고, 1965년 싱가포르가 분리되어 독립하였다.

##### 나. 기본현황

- 수 도 : 쿠알라룸푸르
- 인 구 : 26,857,600명(2006년 현재)
- 위 치 : 말레이반도 및 보르네오섬 북부
- 기 후 : 고온 다습의 열대성(21℃ ~ 34℃)
- 면 적 : 329.733km<sup>2</sup>(한반도의 1.5배)
- 주요도시 : 쿠알라룸푸르, 페낭, 조호바루, 쿠칭, 코타키나발루
- 주요민족 : 말레이(61%), 중국계(29%), 인도파키스탄(9%)
- 주요언어 :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
- 종 교 : 회교(국교), 불교, 기독교, 기타

## 2. 태 국

### 가. 역사

- 공식국명은 'Kingdom of Thailand'로 타이로 불려지고 있으나 옛이름은 사이암(siam, 1856~1939), 별칭은 자유의 땅을 의미하는 'Muang Thai' 즉, 태국(泰國)이라고 한다.
- 아시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불교의 나라로서 중국과 인도 사이에 위치하며, 외국인들에게 사이암으로 알려져 왔다.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동쪽으로 라오스, 남동쪽으로 캄보디아와 타이만,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 남서쪽으로는 안다만해와 접하고 있다. 수도는 천사의 도시라 불리는 방콕이고 이곳은 '동양의 베니스'로 칭송받았던 물의 도시였다.

### 나. 기본현황

- 수 도 : 방콕
- 인 구 : 62,800,000명(2003년 현재)
- 면 적 : 513,115km<sup>2</sup>(한반도의 1.5배)
- 주요도시 : 치앙마이, 콘캔, 송크라
- 주요민족 : 타이족, 라오족 (80%), 말레이인(10%), 기타(10%)
- 주요언어 : 태국어(공용어), 영어(상용어)

- 종 교 : 불교(인구의 95%), 기타
- 정치형태 :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 기 후 : 고온다습한 열대기후로 하기(3월~5월), 우기(6~9월),  
건기(10월~2월) 세계절로 구분, 연평균 25℃~29℃

## IV. 訪 問 機 關 別 視 察 內 容

### 1.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시청

#### 가. 도시정보

- 면적 : 243.65km<sup>2</sup>
- 인구 : 1,800,674명
  - ※ 15세 이상 39세 미만이 전체인구의 43%로 젊은 도시임.
- 인구구성 : 토착민 41%, 중국계 39%, 인도계 10% 등
- 기후 : 일년 내내 강수량이 많으며, 덥고 습한 적도성 기후 9월부터 4  
월까지의 몬순기후를 보이기도 함.
- 도시의 역사
  - 1890년 : 도시의 위생상태만을 정비(Sanitary Board)
  - 1940년 : Town Board로 승격
  - 1948년 : 시 규모를 갖추
  - 1972년 : 도시의 규모가 커져 93km<sup>2</sup>의 공식적인 면적을 가짐
  - 1974년 : 연방정부로 소속되고 셀랑고르주에서 분리
- 시장 : 2년마다 1번씩 지명제도(연장가능)
- 조직 : 25개 부서
- 도시특징 : Kuala Lumpur는 말레이시아의 세 연방구 중 하나로 말레

이시아 서해안 중부의 산록지대에 있으며 켈랑강 어귀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말레이시아인들은 이 도시를 KL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Petronas Twin Tower 가 위치해 있어 더 유명하다. 말레이시아의 의회가 위치해 있어 입법수도라 불리우며, 한때는 연방정부의 사법기관이 위치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푸트라자야로 옮겨갔다.

- 경제 : 쿠알라룸푸르와 그 주변 지역들은 대부분 매우 발전되고 말레이시아 내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는 곳이다. 비록 연방정부 행정기관들이 푸트라자야로 일부 옮겨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정부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나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그리고 여러 나라의 대사관 등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경제, 산업의 중심지이며, 특별히 파이낸스, 보험, 부동산, 예술 등의 본거지로 꼽히고 있다.

다른 중요한 경제 활동으로는 의료서비스와 교육을 들 수 있는데, 이 지역에 말레이시아 대학, 국제메디컬 대학 등 유명 교육기관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종류의 수업을 제공한다.

## 나. 방문개요

- 일시 : 2008. 4. 29(수) 09 : 00
- 방문내용

쿠알라룸푸르 시청에 도착한 첫 느낌은 시청이 참 깨끗하고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관광부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브리핑 룸에 입실하여 브리핑을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1) 시청 브리핑 룸에서 브리핑을 듣고 있는 장면

#### 다. 도시계획 및 발전정책

- 쿠알라룸푸르가 지금의 도시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72년으로 1974년에 완벽한 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시청의 기능은 대민 서비스 제공, 공공주택사업, 각종 개발계획 조정 및 시행, 인허가 등 우리의 수도 서울과 흡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쿠알라룸푸르도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계획을 추진했을 때 본 도시모습을 갖추고 정치, 경제, 공공활동의 중심도시, 선진세계화 도시로 거듭났다.

그림2) 쿠알라룸푸르 시청현관

그림3) 페트로나스트윈타워



- 시의 4대 성장 정책은 아이티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도시, 푸트라자야 신행정도시, 사이버자야 최첨단 정보화 도시, 공업화 선도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세계적인 수준의 근무조건 환경이 조성된 도시, 세계적인 수준의 살기 좋은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도시, 최고의 비즈니스 도시, 국가 행정도시가 되는 것이 쿠알라룸푸르의 비전이다.
- 쿠알라룸푸르시는 앞으로 시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별구역을 제정하고, 경제특구, 산업공단 특별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 예술, 쇼핑 여러 가지 등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한 도시로 거듭나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 교통정책으로는 대중교통이용의 증가, 모든 대중교통 방식의 통합, 수송터미널 주변 발전강화, 특히 시 중심의 교통체계, 버스터미널 네트워크, 도로개선, 손실된 연결체계 사이클링의 추진 등이 있다.
- 교통운영방식으로는 일방통행 방식, 대중교통 신호체계의 전산화, 버스노선 정비, 버스와 택시를 위한 정류소 운영, 버스노선 변경,

보행자 보도 정비 등이 있다.

- 주거환경의 적절한 혼합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 인구유입의 분배를 적절하게 한다. 또한 임대주택 보조금을 지급하여 집을 살 수 없는 시민들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한다.
-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노인, 장애인,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사회 프로그램 지원한다.
- 공원, 하천 폐수처리 시설 공기오염 저감대책 등 도시환경 미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라. 도시발전에 따른 문제점

- 도시발전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통체증을 해결해야 하며, 세 번째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주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네 번째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을 들 수 있겠다. 1984년까지 시가 수도로서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며 인근 소도시들과 더불어 발전하였으며, 경전철, 모노레일 등이 완공되어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인구증가율이 낮아 주택부족 및 도시문제는 크게 없었으나 급속한 인구증가와 개발계획으로 도시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전 2020계획에 도시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림4) KL타워에서 바라본 시내전경

#### 라. 주요 질의답변내용

- 질문 : 조경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녹지율은 몇%인지?

답변 :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도시를 건설하거나 재정비할 때 녹색



지대를 최대한으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녹지지를 보호하고 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공원조성과 조경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최소 30%이상의 녹지를 확보하고 있다.

○ 질문 : 코타키나발루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지 위탁관리인지?

답변 : 말레이시아는 미국처럼 주가 있기 때문에 주 연방국과 흡사하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포함되지만 코타키나발루는 사바라고 하는 주안에 속해 주정부에 의해 관광업에 대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 질문 :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삼성물산에서 시공하였고 폐낭시에 있는데 폐낭대교는 현대건설에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평가는 어떠한지?

답변 :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는 밀접한 관계로서 대규모 공사를 대한민국에서 많이 수주를 받아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 질문 : 우리방문단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이다. 여기로 말하면 주정부나 자치정부를 감시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 : 말레이시아는 3개 연방시와 13개 주로 돼 있다. 쿠알라룸푸르는 연방시이며, 시·구의회가 있는데 선거가 아니고 임명제이다. 구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선거에 의해서 한 분들보다는 힘은 약하지만 시장을 도와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의견이 있으면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림5) 쿠알라룸푸르시청 비교시찰을 마치고 기념촬영

## 2. 수방자야 구청 방문

### 가. 도시정보

- 면 적 : 161km<sup>2</sup>
- 인 구 : 542,000명(말레이인, 화교 등으로 구성)
- 행정조직 : 29개 동으로 구성
- 구의회는 임명직으로 29명의 의원이 있으며 무급으로 활동비만 지급하고 있음.
- 구청조직 : 16개 부서
- 도시특징 : 말레이시아 구 중에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 구로 화교가 많이 거주하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은 지역이며 직업군도 금융, 서비스 등으로 도시의 수준이 높은 지역이다.

### 나. 방문개요

- 일시 : 2008. 4. 30(수) 14:30
- 방문내용  
수방자야는 당초 구의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구의회를 방문하지 못하고 구청에 도착하여 구청장실에서 의장단과 접견후 2층 회의실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은 후 도시행정 전반에 관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그림6) 수방자야구청에서 부구청장에게 브리핑을 듣는 장면

### 다. 수방자야 지방정부의 기능 및 역할

- 수방자야 구청은 주정부 관리 하에 있는 구로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쓰레기 관리, 도로보수관리, 환경과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 정비 및 관리(오락센터, 어린이놀이공원, 급식시설, 마을회관) 등 공공행정 기관으로서 우리의 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지방의회는 97년 2월에 구성하였으며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의원으로서 구청장을 보좌하고 제언해 주는 기능으로 29명이 있다
- 구의 행정은 지방행정 서비스와 쓰레기 관리, 도로보수관리, 환경과 가로 등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공시설(오락센터, 어린이 놀이공원, 음식점, 마을회관)을 설치와 환경·위생을 위한 법률을 시행에 있다
- 수방자야의 미래상은 지능형 지방자치단체, 사업센터, 그리고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어 말레이시아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수방자야구의 추진시책
  - 1) 어린이 창조력 개발을 위한 조기교육센터의 운영
  - 2) 주민에게 공공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편의시설의 확충
  - 3) E-public 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지방자치 의회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발전
  - 4) rebanding : MS ISO 2000, KPI, 고객센터
  - 5) 무주택 해소 : 무주택자 해소를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

- 6) Jawatankussa Penduduk(JKP) 앞서가는 지방행정 구현
- 7) 행정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직원들을 시상
- 8) 고객관리를 잘한 훌륭한 직원 시상
- 9) 도로, 하수, 잔디 깎기와 쓰레기문제에 관해 매일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는 구정추진

## 라. 주요 질의 답변 내용

- 질문 : 수방자야만의 지역축제가 있는지?  
 답변 : 구만의 특별한 축제는 없으며 10km 마라톤 대회를 매년 구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다.
- 질문 : 거리가 비교적 깨끗한 것 같은데 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 : 청소원을 두고 있으며 쓰레기는 매립과 소각을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다.
- 질문 : 매주 구청장이 집단민원관련 주민과의 면담을 실시한다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 : 구청장과 주민들과 만남은 매주 금요일 날 월 3회 구청 또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구청장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진행방식은 현장에서 구청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향후 해당부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3. 파타야 시청

### 가. 도시정보

- 면 적 : 22.2km<sup>2</sup>
- 인 구 : 104,318명(2007년 기준)

- 위 치 : 방콕으로부터 165km 떨어진 동남쪽에 위치
- 기 후 : 열대성 몬순 기후
- 정부형태 : 특별자치행정구역
- 개황현황 : 다른 75개주와는 달리, 방콕과 함께 태국의 대표적인 특별행정구역으로 분류되며, 지역 내 행정구역은 총 4개이다
- 경제구조 : 산업공단이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파타야 경제는 대부분 지역 내 관광산업, 쇼핑 등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 나. 방문개요

- 일시 : 2008. 5. 2(금) 10:00
- 방문내용

파타야 시청에 도착하여 관광부서 담당자의 안내로 2층 회의실에서 파타야 관광산업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과 VTR상영을 보고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파타야시에서 5월 4일에 지방선거를 치러야하는 관계로 시청 전체가 선거업무에 분주해 하고 관련부서에서도 정황이 없어 관광정책이나 또는 도시개발 정책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질문 등을 충분히 하지 못한 아쉬움이 드는 기관방문 이었다.

그림7) 파타야의 긴 해변과 바닷가 풍경

## 다. 파타야의 관광현황

- 파타야시는 드넓고 긴 해변과 깨끗한 바닷물 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동양의 하와이” “아시아 휴양지의 여왕”이라고 불리며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태국 동부해안 최고의 휴양지로 각종 해양스포츠를 비롯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 작은 어촌마을에서 도시가 출발하여 도로, 교통, 주택 등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호텔, 식당 등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확충이 되어 있었다.

또한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결합한 듯한 썬테우는 어디서나 손을 들고 세워서 단체의 경우 택시처럼 개인의 경우 버스처럼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 파타야시의 기본현황 또는 정책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영문으로 된 자료가 부재하였고 이틀 후 치러지는 선거로 인해 시청 전체가 선거에 전념하고 있어 다소 아쉬운 방문이었다.

## 라. 주요 질의답변내용

- 질문 : 파타야에서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 : 시청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은 하고 있으나 관광업체에 관하여 특별한 지원책은 없으며 업체 자율적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 질문 : 5월 4일 지방선거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선거인지?

답변 : 권역별로 3명씩 총 9명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이며 일요일 날 선거가 치러지며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 중이다.

#### 4. 태국 한인회 방문

##### 가. 한인회 복지관련 현황

- 태국한인 거주인원 : 약 30,000명
- 주요거주 지역 : 방콕, 파타야, 촌부리, 라용, 푸켓 등
- 문화회관 운영 : 방콕 수쿰윗
- 재태국 한인회 사무실
  - 한인들을 위한 상비약 비치 / 각종 회의장소 제공
  - 한인 통역서비스 및 병원비 할인혜택을 지원
- 시니어 골프회 운영
  - 원로 한인들의 건강을 위한 골프모임
  -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단체 등에서도 노인 복지사업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한인회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을 모색 중
- 방콕한국국제학교 후원(민부리 소재)
  - 교육부 설립인가 초,중,고 과정 150여명의 학생

##### 가. 방문개요

- 일시 : 2008. 5. 3(토) 13:00
- 방문내용
  - 태국 한인회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에서 한인들의 복지관련 현

황에 대하여 간단한 브리핑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 나. 한인회 및 복지시설 운영 실태

- 한인회는 10년 전부터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문화회관을 기증해서 3층 건물로 독자적인 건물로 운영하고 있다. 한인들의 복지사업은 건강강좌, 청소년 오케스트라, 요가강습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한인 권익보호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태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주5회 100명이 강의를 듣고 있다. 태국도 한류열풍이 불어 한국연예인들의 인기가 좋고 “가을동화” 드라마와 “대장금” 등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 가수들의 노래가 최절정이라고 한다. 그런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태국인들이 많이 늘어났고 태국의 명문대학인 타마사 대학교, 줄라랑콤 대학교는 서울의 명문대와 같은 곳인데 그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어 최근 상당히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다.
- 한인지정병원이 방콕시 소재에 3군데가 있고 통역서비스 및 병원비 할인 서비스를 한인회에서 지원한다고 한다.
- 태국의 국교가 불교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인정된 나라로 다른 종교가 들어와 포교활동이 활발하다고 한다. 이러한 포교활동과 건강검진 각종 경로행사 등 노인 복지사업을 활발하게 펼친다고 한다.
- 교육사업으로는 2002년에 교육부 설립인가를 받아서 방콕 한국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이사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초중과정에 150여 명의 학생들이 인터스쿨 형식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또한 유치원이라든가 입시학원 특례학원 같은 것은 사설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대사관하고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이루고 한인들의 복지혜택 여러 가지 현안사항 등을 항상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다.

#### 다. 주요 질의답변내용

○ 질문 : 태국에 유학생이 많이 오는지?

답변 : 유학생들이 한류 때문에 많이 늘고 있는 추세고 지금 에이백이라는 대학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150명 가까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림8) 한인회에서 브리핑을 받는 장면

○ 질문 : 태국에도 태권도가 많이 보급이 되었나요?

답변 :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 국가대표 감독이 한국분이고 그분은 한류스타만큼 인기가 있다. 작년에 한인회에서 한태 친선탈권도대회를 해서 보급을 많이하고 있고 태국 젊은이들이 태권도를 좋아하고 있다.

○ 질문 : 한인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 한인회는 1964년에 출범이 됐고 해외재외국민들은 한인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있다. 한인 약3만 명 중 한인회에 가입된 숫자는 7,000명 정도로 회비를 납부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인회장 이하 직원들이 무급봉사직으로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질문 : 한인회에서 여행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거나 접한 주 내용이 무엇인가?

답변 : 약 3만 명의 한인중 태국의 특성상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3가량이 된다. 최근 여행업계가 상당히 어렵고 한인상가들도 여행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질문 :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려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이 바뀌어서 태국사람 명의로 지분이 있어야 하고 나중에 잘못되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요소는 항상 남아있다. 현재 제조업이나 여행업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불이익은 없다.

○ 질문 : 공장부지 같은 경우는 임대인지?

답변 : 장기임대로 땅을 30년 장기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태국사람 명의로 사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9) 기관방문 기념품 전달



그림10) 한인회 방문 기념촬영

## VI. 訪問機關別 比較視察 結果

### 1. 총평

- 이번 말레이시아, 태국일정은 무덥고 습한 기상여건과 현지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힘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의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기관방문에 임하셨으며, 쿠알라룸푸르 시청에서는 많은 질문을 하여 당초 예상시간보다 방문시간이 연장되기까지 하는 등 열정을 가지고 비교시찰에 임하였다.
- 수방자야 구청은 당초 구의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사정으로 구청을 방문하여 의회의원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우리구의 기관방문 일정에 맞추어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 주었으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역량을 강화하는 매우 보람되고 알찬 비교시찰이 되었다.

### 2. 쿠알라룸푸르 시청

- 말레이시아는 국민소득이 우리의 절반이하지만 마하티르수상이 제창했던 비전2020 계획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 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또한 2020년까지 쿠알라룸푸르를 환경친화적인 도시,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모든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그 모토로는 안전, 평등, 조화, 편안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 시의 4대 성장정책으로는 아이티를 기반으로 한 경제의 중심지, 푸트라자야 신행정 도시, 사이버자야 최첨단의 정보화 도시,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 건설이다.
- 또한,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인 88층의 패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우리

나라 삼성엔지니어링/극동건설이 시공한 건축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높여주는 해외공사로서 우리 방문단이 이곳을 시찰대상지로 선택한 것은 최근 우리 인천광역시도 송도 신도시의 랜드마크인 151층 인천타워의 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구에도 페트로나스 투윈타워 같이 도시를 대표할 건축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쌍둥이 빌딩은 말레이시아 최고 정유회사인 페트로나스 정유회사 소유로서 페트로나스 사이언스 디스커버리 센터는 유전에 대한 상식을 알리고자 유전발굴, 채취, 분리 등의 과정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만든 전시관이라 한다.

- 쿠알라룸푸르 도시의 느낌은 무더운 날씨였지만 거리와 자동차가 깨끗하고 도심지 어디를 가거나 녹지와 나무들이 무성하게 드리우고 있어 자연과 잘 어우러진 도시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녹지와 나무들이 유해환경을 잘 정화하여 먼지 없는 도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원동력인 것을 알 수 있었다.
- 또한 광고물이 우리나라처럼 무질서하게 설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광고물만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의 거리가 깨끗하게 보일뿐만 아니라 건물 또한 건축물 본연의 모습을 보임으로서 녹지와 건물과 도로, 공원 등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도시미관에 대한 그들의 안목이 부러웠다.
- 시청사 또한 야자나무 등 열대성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자연친화적인 건물로 보였으며 공무원들 또한 친절하고 여유있는 모습이 상당히 부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 3. 수방자야 구청

- 수방자야구는 인구가 우리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말레이시아 구 중에서도 시

시스템이 잘 정비된 선진구로서 금융, 서비스업이 잘 발달된 도시이며 교육수준이 상당히 높은 잘 정비된 도시이다.

- 구의회는 1976년 현지법령을 통해 선거를 하지 않고 29개 동에서 1명씩을 임명하여 행정지원 또는 감사를 하거나 집행부에 정책적인 제언을 하거나 정책결정을 하는 권한까지도 가지는 독특한 구조로서 무급으로 연간 3,000만원 정도의 활동비만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권한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 초기 단계처럼 계속적으로 의회의 위상이 진화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의원들 스스로도 좀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업무연찬과 참여를 하고 있으면 자질 함양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한다.
- 또한 독특한 형태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자원봉사 의원”으로 총 16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의원처럼 임명을 받아 구정자문 및 제언, 감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새로운 혁신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 4. 파타야 시청

- 파타야시는 드넓고 긴 해변과 깨끗한 바닷물 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태국 동부해안 최고의 휴양지로서 각종 해양스포츠를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을만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한다.
- 도시의 생성이 작은 어촌마을에서 이루어져 도시계획은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나 자연과 잘 어우러진 가로수와 도로, 무질서 해 보이지만 야간에만 주차장에서 운영되는 노점상, 택시와 버스의 장점을 결합한 듯한 대중교통인 썬테우,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음식점, 또한 풍부한 열대과일 등 먹을거리, 다양한 관광객들의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 등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

- 파타야 축제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파타야의 촌부리에서 개최되는데 태국의 해변 휴양지로 유명한 파타야가 세계적인 무대임을 자처하며 음식과 꽃장식, 마차행렬, 미인선발대회, 불꽃놀이 등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아쉽게 축제가 이미 끝난 후여서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 파타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간 많이 방문하는 태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임에도 한글로 된 안내책자나 표지판 등을 볼 수 없었고, 관광정책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영문으로 된 자료가 부재 하였으며 이를 후 치러지는 선거로 인해 시청 전체가 선거에 전념하고 있어 다소 아쉬운 기관방문 이었다.

## 5. 태국 한인회

- 한인회는 10년 전부터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문화회관을 기증해 복지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한다.
- 한인회의 복지사업으로는 한인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태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국에도 한류바람이 불어 유수의 대학에 한국어 학과가 생기는 등 한국어를 배우고자하는 태국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더불어 한인들을 위한 상비약의 비치, 각종 회의장소 제공, 시니어 골프회 운영, 한인통역서비스 및 병원비 할인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 또한 태권도의 올림픽종목 채택으로 태국에서도 태권도의 인기가 높아져서 우리의 국익신장을 위해서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한다.
- 이러한 저변에는 교포들의 권익신장과 복지를 위하여 무급자원봉사 성격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한인회 종사자들의 노력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으며 외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본인들의 생업에도 불구하고 고생하는 한인회의 종사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 다만, 외국에 나갔을 때 늘 아쉬운 점이지만 미국, 일본, 중국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위상이 높지 않은 우리교포나 여행객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나라도 국력신장과 아울러 대사관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자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6. 기타

- 비교시찰을 마치면서 좀더 아쉬웠던 점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해외 비교시찰에 대한 예산과 프로그램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매년 비교시찰 여비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선진국의 앞서가는 행정을 벤치마킹 하려해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기관섭외 또는 자료를 얻어오는 실정이어서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할 경우 원하는 자료를 구하지도 못하고 시민단체들로부터 관광, 외유성이라는 비난을 받기 일쑤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또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비용과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비교시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지금의 획일적인 예산편성 지침을 개정하여 1인당 상한액을 정하지 않는 다거나, 격년제 비교시찰 또는 인원 조정을 통해 내실있는 비교시찰이 되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았다.
- 끝으로 이번 해외비교시찰 기관방문지에서 우리 부평구의회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기관장 및 부서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